후원회소식

통권 182호 | 발행일 2006. 12. 17 | 발행인 권오헌 |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평택미군기지 재협상하라!

▲ 17일 오후 평택역에서 미군기지확장반대 송년문화제가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기자]

·목·차·

우리의 주장 권오헌 • 2 / 알립니다 • 5 / 출소장기수 기고 · 북·미관계와 북한붕괴에 대한 나의 견해 고성화 • 6 / 감옥에서 온 편지 유기수/김성환/이정훈 • 8 / 재판방청기 권오헌 • 10 / 회원마당 · 나의 평양방문기 강덕환 • 12 / 알립니다 • 16 / 슬픈일이 있었어요 • 17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19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1 / 재정보고 • 29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30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hanmail.net

세계인권선언 발표 58년 맞은 이 땅의 인권 현실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회장

12월10일로 인류헌법의 전문이라고 불리는 세계인권선언 발표 58년을 맞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갖고 있으며 종족, 살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재산, 가문, 사회적 신분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자유, 법 앞에 평등과 사상 · 양심의 자유, 집회 · 결사의 자유, 정보와 사상을 탐구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고 했다.

이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또는 국가 기구와 자원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그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불가결한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제권리를 실현하는 권리를 갖는다 했다.

바로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직업의 자유선택과 적정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해서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동등한 일에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일하는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문화생활, 과학발전에 따른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인권선언이 있기까지엔 사람이 사람을 억압 착취하는 모든 사회제도와, 법과 통치기구 등에 줄기차게 싸워 얻은 사람의 권리 선언에 토대되고 있으며 수많은 전쟁, 특히 엄청난 생명을 앗아간 두 번에 걸친 제국주의 전쟁의 참담했던 살육 · 파괴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으려한 한국제연합헌장 정신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지구촌은 냉전체제 해체에 따른 평화에 대한 희망과는 다르게 유일 초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국주의적 군사 패권주의로 끊임없는 침략전쟁과 내정간섭, 고립 압살정책 등으로 살육과 파괴, 고문학대와 빈곤이 잇달으고 있으며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무한 경쟁체계 속에 전세계적 차원에서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정신에 정면 배치되고 있으며,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자유와 평등, 정의 평화 인권에 대한 범죄적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얼마전 3,000억 달러 수출을 자랑하고 있는 이땅의 인권 현실은 어떠한지 몇 가지 유형으로 그 현주소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 땅은 우리 민족의 의지와 관계없이 61년 분단 체제 속에 오랜 군부독재체재를 지나 이른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오면서, 지난 권위주의 시대 때보다는 민주주의 발전과 일정한 인권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 정도에 이르기까지엔 외세와 분단 억압 착취에 맞서 4 · 19 혁명, 부 · 마항쟁, 5 · 18 민중항쟁, 6월 민중항쟁, 7 · 8월 노동자 대투쟁 등이 잇달았으며,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수많은 민족 · 민주 열사, 희생자가 산화해 갔고, 사법살인 당했으며, 수천 명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과는 턱없이 거리가 멀다. 외세 강점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그것이고, 권위주의 시대, 냉전시대의

법과 제도, 관행 정책, 그리고 폭압 기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바로 청산되지 않은 일제 잔재, 주한미군의 61년 강점 냉전법제와 반노동악법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과정이 이 땅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아직도 감옥엔 공동선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가 가득 차 있다. 정의 · 평화를 외치고 다수의 이익을 위한 확신을 가진 행위를 구속으로 대응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배치되는 반문명적 야만 행위이다.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을 중시한다던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난 11월 22일 현재 973명의 양심수가 구속되었고, 종교적 신념으로 총을 들지 않겠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천 명이 구속되었다. 아직도(11월 22일) 감옥엔 노동자, 농민, 학생, 철거민, 통일운동 관련 재야인사 등 103명이 갇혀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주장한 양심수 899명이 수감 상태에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7명), 집시법(19명), 노동관계법((77명),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에만도 281명이 구속되었고,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했던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존치되고 있는 것 또한 인권후진국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이 반인권 반통일 악법은 다 알다시피 일제 식민지 지배수단의 잔재이면서 새로운 외세와 무관치 않은 냉전 법체계이다. 2004년 집권여당의 의지부족으로 폐지못한 채 한동안 숨죽이고 있던 이 악법이 다시 비수를 꺼내들고 있다. 잇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발표하며 입건, 구속, 기소,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오늘 현재까지 '통일전쟁론' 등 필화사건으로 강정구 교수가 법정에 세워지고 있으며,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학교 자료집' 관련, 민권연구소 최희정 상임연구원,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이주희 위원장이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입건, 구속되고 있었다. 최근엔 이른바 '일심회' 사건을 발표하며 민주노동당 소속 당원과 재야인사 등 5명에 대한 특정인의 진술 등만으로 네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또한 고령의 강순정 통일운동원로를 통신 · 회합죄로 구속했다. 6 · 15 공동선언시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존립명분을 잃고 있으며, 사상 · 양심의 자유, 집회 · 결사의 자유, 학문 ·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배치되고 있는 이 반인권 · 반민주 · 반통일 악법은 당장 폐지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한 해 특히 평화와 생명의 땅에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평택 지킴이들에 대한 대탄압이 자행되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평화와 생명에 반하는 살육과 파괴의 침략기지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더구나 동족을 겨루고 동북아 패권을 노린 것을 용인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일제시대 빼앗겼던 땅을 또 다시 미군에게 빼앗기고 개펄을 개간하여 얻은 황새울 들녘에서 주민들과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내쫓으려는데 반대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미국의 강압에 따라 이른바 '행정대집행'이니 '군사시설보호지역'이니하며 폭력으로 대추분교를 때려부수고, 황금벌 들녘을 마구 파헤치며, 철조망을 설치하는 무법 불법 행패를 자행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던 주민대표와 평택지킴이들 719명을 강제연행하고 7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

구했으며, 김지태 주민대책위원장 등 8명을 구속 · 기소 · 재판을 벌이고 있다. 또 많은 지킴이들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수천만 원을 벌금을 물리는 적반하장 행패를 자행했다.

또 다른 인권유린 행위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의 생존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대응, 강제연행하고 입건, 구속 기소하는 야만행패이다. 11월 30일 보수 여 · 야당은 민주노동당의 반대를 짓밟고 비정규직관련법을 통과시켰고, 12월 8일엔 노 · 사관계법과 제도 등을 규정하는 이른바 '로드맵'을 국회 환경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비정규직 확산법'을 만들었다. 자본은 그 생리상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로 이윤의 극대화를 노린다. 비정규직 노동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과 자본의 초과이윤창출 과정의 필연적 소산이다. 기간제 고용노동, 간접고용노동, 도 · 하청노동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미 60%가 넘어섰다고 한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밖에 대우를 받지 못하는(2005년 8월조사 50.9%) 800만에 이르는 이들이 노동빈곤층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구조화되면서 사회양극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그 피땀을 쥐어짜고 있는데 비해 불로소득자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시가 총액은 309조원이 늘어났다고 한다. 일하는 노동자, 농민들의 총소득을 몇 배나 앞지르고 있다. 또한 이땅의 인구 1% 땅부자가(약 50만명) 전체 개인토지 소유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밝혔다.

일하는 사람들이 단결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며, 자신의 노동력말고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조건에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다. 포항건설노조원 등이 사람답게 살고싶다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농성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 그러나 사용자와 공안당국은 무자비한 탄압으로 대응했다. 포항건설 노조, 대구 · 경북 건설 노조, 충남 건설노조, 경기건설노조들은 도 · 하급의 이중착취구조 등 개선을 요구하다 수백 명이 폭력 강제연행되었고 90여명을 무더기로 구속 기소, 재판에 회부했다. 경찰의 폭력 진압 과정에서 하중근 노동자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이는 반노동적 반사회적 고용형태로서 기아임금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대탄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삼백만 농민의 생명줄인 쌀 개방을 비롯하여 광우병 쇠고기에서 심지어 법률 서비스 통신, 방송, 전기, 가스, 교육, 영화 등 모든 부분에 대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한 · 미 FTA 협정은 이 땅을 미국의 또 다른 경제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수백 개 각 부분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공안당국은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 FTA 저지 범국민총궐기대회와 관련 30여명을 강제연행하고 100여명에 소환장을 보내는가 하면 47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7명을 구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2차 총궐기대회는 공안당국이 모든 지역에서 불허조치와 함께 서울시청앞 광장을 전경버스로 온통 에워싸는 등 집회와 시위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유린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미국의 대북체제 압력에 밀려 지난 11월 15일 이른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하였다. 정부는 이전까지는 이른바 대북인권접근 4원칙을 지니고 있었다. 바로 ○인권은 인류의 보편가치, ○나라마다에 처한 상황에 따른 특수성 인정, ○남북긴장완화에 따른 북인권의 점진적 실질적 개선, ○남북관계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가 그것이다. 그리하여 2003년 4월 59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불참한 것을 비롯 60차, 61차때 기권했고 2005년 유엔총회 때도 기권했었다. 그러나 2006년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돌변했다. 이른바 대북인권 결의안을 주동한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권 침해를 범하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이었다. 아프카니스탄, 이

라크에 대한 침략전쟁과 수십만 명을 죽이고 파괴하며 악명높은 고문학살 만행 등 미국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말할 여지도 없지만, 이들 결의안 추진나라들의 속셈이 단순한 인권문제가아니라 대북정권 붕괴 수단으로, 대북적대정책에서 나왔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인권의 보편성을 말하지만, 나라나 민족마다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인권개념은 달리 해석할 수 있으며, 민족자주권 수호와 전쟁억제력은 그 어떤 인권개념에 우선한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흉보는 꼴로 미국 등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인권공세는 내정간섭을 엄격히 부정하고 있는 유엔헌장 정신에 반하고 있다. 정부는 6 · 15 공동선언 이후 이어오던 남북 사이의 인도주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심지어 큰물 피해 복구물자조차 보내지 않았으며 남북 사이의 직항로와 인적교류사업도 일방적으로 제약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인권현실로 볼 때 정부가 대북인권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민족전체의 존엄과 이익에도 배치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집시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 ●●노동관련법 민주적으로 개정하고 비정규노동 당장 없애라!
- ●●평택 미군기지 확장 계획 폐지하고 주민들이 평화와 생명의 땅에서 살게 하라!
- ●●대북제재 즉각 중단하고 화해협력사업과 인도주의 사업을 이행하라!

알립니다

2006년 송년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러했듯이 2006년 12월 10일 세종문화회관 뒤편 음식점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006년 회원 송년모임이 있었습니다. 후원회원과 장기수선생님들, 민가협어머님들, 사회단체원로 등 14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1부순서는 김호현 부회장 사회로 송년모임 선언, 민중의례, 권오헌 회장의 인사말과 오신 분 소개에 이어 장기수선생님을 대표해 멀리 제주에서 오신 고성화선생님이, 민가협을 대표하여 이영상임의장의 격려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대표로는 이규재 범남본의장,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투쟁으로 구속되었다 풀려난 노수희 전국연합공동의장의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이어 이용준회원이 장기수선생님들께 드리는 글, 홍세회회원의 민가협어머님들께 드리는 글을 읽었고 1부 순서 마지막으로 권낙기 통일광장 공동대표의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수전원석방,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건배제의가 있은다음 차려진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2부 순서는 모성룡 운영위원 진행으로 민가협어머님들과 회원들의 흥겨운 노래 공연 등이 있었고 마지막 모두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을 합창하며 마치었습니다.
알뜰하고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회원들과 선생님들 어머님들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북·미관계와 북한 붕괴에 대한 나의 견해

고성화 | 비전향출소장기수

2008년 11월에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누르고 집권하면 조.미직접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이 그때까지 제재압력을 견디며 기다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러한 전망은 빗나간 것이다. "핵문제'를 물러싸고 사회주의 대 제국주의의 대결이 거듭된 지난 13년 동안 제국주의 전쟁광들은 북과 정치적으로 합의한 여러 공약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책임을 북에게 뒤집어씌우는 파렴치하고 악의적인 행동을 취해 왔으므로 북은 미국의 정권교체에 기대할 수 없음을 절감하였을 것이고 , 제국주의 전쟁광들의 공약파기를 용인하면서까지 제국주의 제재압박을 무작정 연장해야 할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 대 제국주의 대결이라는 견지에서 북의 핵실험을 바라보면 그것은 핵 실험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 영국, 프랑스같은 제국주의와 대결하지 않는 나라가 실시한 핵실험 역시 시험이지만 제국주의와 맞붙는 결전에 나선 북이 실시한 핵 실험은 실험이 아니라 공세이다.

평범한 뜻으로 말하는 공세가 아니라 핵 몽둥이를 부르쥐고 '조선'을 50년 동안이나 괴롭혀온 제국주이 전쟁광들에게 직격탄을 날려버린 '대공세'이다. 그래서 나는 '핵실험 대공세'라고 표현하고 싶다.

북의 인민들은 남은 쌀로 죽을 쑤어먹고 그것도 없으면 풀뿌리를 먹고 산다. 자주란 무엇인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인류의 평화적 삶을 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0년 9월 2일 북으로 간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은 평화와 자주와 계급없는 사회가 지구상에 사는 전 인류를 구한다는 신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다.

상기 63명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평화, 모든 나라의 자주적 독립을 보장하는 평화 전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를 뼈 속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신념과 의지의 강자가 되어 조국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착취와 침략이 없는 나라와 전쟁이 없는 지구를 건설할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진 애족 애국의 전사들이다.

북의 붕괴는 없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다. 북 핵실험 이후 미국은 '북한 때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숀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 양자 대화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1994년 제네바 '북미기본합의서'의 잉크가 마르자마자 북한은 미국을 속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기본합의서의 미국측 협상대표였던 로버트갈루치는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에도 미국은 합의서 내용의 극히 일부만 이행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비교적 한반도의 평화지수를 높였다고 평가되던 클린턴정부도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대북정책을 시도했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동아시아국장이던 스탠리 로스는 퇴임 후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은 북한의 즉각적인 붕괴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3주전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 '케런 D 영'이 출판한 <군인 : 콜린파월의 생애>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파원을 부시가 '북의 도발'에 대해 부드럽게 대응하는 것을 지극히 혐오했다고 전한다. 미국은 미국의 외교와 친선을 '보상'으로 생각한다. 붕괴시켜야 할 북한에 대해 보상을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에 북,미 양자회담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국의 최종목표는 '북의 정권붕괴이지 김정일정권과의 대화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북은 '문이 안세서는 열려있는데 밖에서 잠겼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그토록 바라는 북한의 붕괴는 북은 도데체 왜 무너지지 않을까?

사실 국내의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의 붕괴를 오래전부터 점쳐왔다. 그들은 핵실험이 가시화되면서 북의 내부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의 경제제재가 더욱 강화되면서 북한 사회의 위기설도 만연하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쯤되면 미국의 북한길들이기가 먹혀들어가는 것 같다.

하지만 북에는 외부인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은 어려운 정신세계가 있다. 그것은 '정치적메니시즘'이다. 이는 국가의 이념이 종교화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정치종교'이다. 정치종교는 이념과 신앙이 일치되는 국가종교이다. 정치종교의 국가 이념은 공동체이 이익과 생존을 위하여 대중이 감당해야하는 고통과 인내의 당위성을 유도한다. 정치종교는 이미 '자발성'하는 논의을 무색하게 한다. 북한 인민들의 마음 속에 정치적신앙'으로 작용할 뿐이다.

북에서는 핵무기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자부한다. 그것은 인민들이 일심단결하여 뭉치는 '주체정신'이다. 북의 정치적 '메시아니즘'은 수령-당 인민의 '사회정치생명체'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북은 외부억압이 강해질수록 내부적 결속이 더욱 강해진다. '총에는 대포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나온다. 쌀이 없으면 죽을 먹고 죽도 없으면 풀뿌리를 먹고 산다. 핵실험 이후 북에서는 '2천만이 총폭탄되어 수령을 결사옹위 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고 한다.

흡수통일은 한반도의 재앙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면 평화적 조건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 라이스미국무장관은 최근 방한기간 중 개성이나 금강산 중 하나만 선택할 것을 남한정부에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반도 평화의 조건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정책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말처럼 '흡수통일은 한반도의 재앙'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북의 내부적 코드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통일정책과 국제외교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치적 메시아니즘의 종교성이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는 이북 사회. 따라서 북의 붕괴는 없다.

알립니다

- 1월 산행안내 -

새해를 맞이하여 통일을 염원하는 산행이 있습니다.

- 일 시 : 2006년 1월 21일(일) 오전 10시
- 장 소 : 평창동 북악호텔 앞
- 문 의 : 간단한 도시락, 회비 3000원
- 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유기수 님의 편지

권오헌회장님, 그리고 후원회 동지들께

가을이가고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기온이 뚝떨어진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영어의몸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양심수와 후원회분들의건강을 기원합니다.

저는 포항교도소에서석달째 지내고있는 건설산업연맹사무처장 유기수 입니다.

후원회에서 보내주신소식지와 영치금 그리고 민족지 잡지 잘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포항교도소에는 현재 8명의 동지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구형을 받은 동지가5명 심리 재판진행중인 동지가3명입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접을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노무현정권에서 유독 건설노동자들이 대량 구속되는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100이 넘는 건설노동자들이 고숙되었고 지금도 수배 연행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구속을 최소화해서 인권을 개선시키겠다는 사업부의 방침도 노동자들에게는 거꾸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노조 탄압의 도구로 구속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청산하자고 하는 외침과 '건설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지극히 정당한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중근 열사의 억울한 죽음도 석달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상도 다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을 멈추게 할 수 없고 하중근건설노동자의 즉음의 진실을 덮을수 없을 것입니다.

후원회의 따뜻한 관심고 보살필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양심수 후원회에서 보내주신 영치금과 소식지 책 잘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후원회 사업에함께 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후에조그만 마음을 보탤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권오헌 회장님과 후원회 동지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강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6 11 5 일요일 포항교도소에서 유기수드림

김성환 님의 편지

권오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모습은 티브이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그리 춥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만 건강하신지 걱정입니다. 항시 몸을 잘 챙기시고 강건하게지내셔야 합니다.

저는 한 달전부터 이곳에서 수확한 고구마를 조각내어 그릇에 담아 키우고 있습니다. 왜 이리 잘 자라는지 뻗어나는 줄기와 커가는 잎사귀가 신기하기만합니다. 하루 하루 물 갈아주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네요

이번 겨울은 감옥에서 맞는 두 번째라 괜히 여유가 있습니다. 더구나 부산교도소와 달리 방에 불이 들어오니 살판났습니다.

얼마 전 06년 연말기념(?)단식을 정리하고 복식 중입니다. 이틀 후부터 정상적인 식사를 할 생각입니다.

영등포구치소에서 옥고를 치루고 있는 네 분의 구속노동자들의 단식 소식에 연대차원에서 시작하였지만 지난 세월 갇혀 지내면서 문제로 느꼈던 수용자 처우문제와서신검열, 영치 문제 등의 소내문제와 복수노조를 악용하여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고 노동자 탄압, 인권유린하는 삼성재벌 총수 이건희를 구속 처벌하라는 요구와 주장을 하며 시작한

단식이 8일 만에 정리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본인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서신을 압류(영치)한 것에 대해서는 소내 방송을 통해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평일 휴일포함) 오전, 오후 각 30분씩 담요 건조, 털이 시간을 보장하였고 격주 토요일 30분 운동을 60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법개정과 시정을 통한 공식적인 시정과 개선은 아니지만 단식 8일 만에 매일 1시간, 격주 토요일마다 30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당장에 형행법과 시행령,. 규정 지침 등을 개정하여 바꾸어 낼 수 없지만 이번 단식을 계기로 교도소장 보안과장 등 공안 담당교도관들이 수용자 처우와 인권에 대한 전향적인 이해와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휴일에도 온종일 독방에 갇혀 잇는 것이 아니라 오전 30분 오후 30분 흙을 밟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낄 수가 있어 징역살이가 한결 수월해졌다고사동 동지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갇힌 자유들이 이곳 뿐 아니라 전 소에 갇혀 있는 구속노동자, 통일일꾼, 양심수동지들과 같이 누리고 자유가 신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갇혀 산지 벌써 21개월 째에 단식이 이번까지 다섯 차례이다 보니 아예 단식하는 것이 징역살이에 일상의 삶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단식을 통해 수용자 처우 등이 개선되고 변화하니 좋고 정신건강에도 긴장감이 있어 좋습니다.

06년 올해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덧붙여 격려와 관심에 진정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지에 12월 10일에 송년 모임이 있다는 알림이 있습니다. 저 역시 한쪽에 앉아 양심수후원회분들과 같이 있음을 알아 주십시오.

양심심후원회 일꾼들, 후원회원들, 그리고 장기수선생님들께 항상 무탈하시고 건강하시라고 인사전합니다. 그리고 차디찬 감옥에서 옥고를 명예롭게 치루시고 있는 구속노동자와 양심수들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권오헌선생님! 이제야 겨우 징역살이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항시 강건하게 지내시고, 선생님의 건투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2006년 11월 23일 나무 영등포교도소에서

김성환드림

이정훈 님의 편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님들께

소위 일심회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어 현재도 검찰 조사 중인 이 정훈입니다. 보내주신 책자와 회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귀한 영치금 잘 받았습니다. 고맙고 반갑습니다.

평소 후원회 행사에 몇 번 참가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다시 후원회 도움을 받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민가협과 저는 인연이 많은 듯 합니다. 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에 제가 당시 학생으로 관련되었었는데 당시 부모님들이 가족대책위을 마련하며 민가협이 출발하는 한 계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당시 참여하시던 분들도 여전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변함없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치소도 이십년 전과 비교하여 적지않은 변화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인간적 처우가 많이 줄었고 신문, 잡지 등 정보 접근도 가능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십년의 변화치고는 실망스러운 점도 여전히 많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학생 때 고대삼민투가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후 이번이 두 번째인데 정말 징그럽습니다. 우리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끝내고 외세 간섭없이 한 번 남보란 듯이 잘 살아보자는데 낡은 국가보안법이 가로 막는군요 죽어가는 국가보안법을 다시 꺼내 휘둘러도 자주와 통일을 향한 우리민족과 민중의 열망은 결코 꺽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희생자이길 바라면서 짧은 글을 줄입니다. 다시 한번 회원님과 권오헌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12월 3일 서울구치소 이정훈드림

평택지킴이들을 피고인석에 세우다니!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회장

12월15일 2006년 이제 보름 밖에 남지 않은 초겨울날씨였지만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찌푸린 하늘과는 달리 춥지 않은 날씨였다. 용산 국방부 앞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졸속강행 국방부규탄기자회견을 마치고, 오늘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투쟁과 관련 재판을 받게된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와 젊은 활동가가 모는 승용차는 평택으로 떠났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정문은 의외로 활짝 열려 있었다. 차에서 내려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 화이버와 진압장비차림의 전경들이 건물 1층 검색대 안에 양쪽으로 늘어서서 무슨 먹잇감이라도 찾으려는 듯 지켜보고 있었다. 군부독재시절 전경에게 사복을 입혀 방청객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예가,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자주 있었지만 진압복차림의 전투경찰이 법정건물 안에 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것도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러한 야만의 행태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다. 그대로 넘길 수가 없어 고함을 쳤다. '신성한 법정에 왜 경찰이 들어와 있어! 당장 철수하라! 그러나 그들은 마네킹처럼 표정도 없이 묵묵부답이다. 세워진 군상들이니 그럴 수밖에 없을 터였다.

전경부대의 법정건물배치는 전적으로 재판부 지시에 따른것이 틀림없었다. 재판장은 법정소란 등을 이유로 방청인을 법원정리를 통해서 퇴장시키는 경우는 있어왔다 그러나 경찰정복 아니 전투복을 입은 전경들을 법정건물 안에 까지 끌여들인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다. 법정정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경까지 끌여들엿을까. 법정질서를 유지할려고 하는 재판부의 불안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얼마나 이 재판이 정당성을 잃었으면 이러한 고육지책을 꾸몄을까!

23호 법정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이미 많은 낯익은 얼굴들이 와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방청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었다. 재판통보를 받고 온 이른바 '피고인'들이었다. 오늘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용부장판사)에서 첫 심리를 받을 사람은 모두 21명이었다. 민족민중운동의 지도급 인사들이 망라되고 있었다. 위에서 말한 정광훈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김용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평택대책위 전상임대표 송태경 팽성주민대책위 기획부장 신종원 주민대책위조직국장 김종일. 최근호 평택범대위공동집행위원장, 윤용배 평택범대위 기획위원장, 윤현수 평택대책위대외협력위원장 등 다 열거할 수 없게 많았다. 이들은 이른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일반교통방해'등 혐의로 피고인 자리에 앉았다. 재판은 예정시간 2시가 좀 지나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오늘 출석할 이른바 '피고인'들이 다 오지 않아 개정은 했으나 심리는 진행되지 않았다. 불구속기소된 사람들이었기에 늦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예 출석을 거부한 사람도 있었다. 재판장이 심리에 앞서 '피고인'들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한 사람은 구인장을 발부하여 재판정에 세우겠다고 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심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였다.

검찰의 직접심문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이 21명이나 되는데 검사는 단 한사람이었다. 정말 죄인을 심문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추궁하고 위협하고 호령하는 권위주의적 모습은 어느 재판에서도(죄인이라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이곳에선 공소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었다. 21명의 혐의내용은 대체적으로 촛불집회 등을 신고없이 진행했다는 것이고 2005년 7.10 평화대행진에서 미군

부대 철조망에 소리천을 달고 철조망 일부손괴 등과. 2005년 8.26일 평택경찰서앞 불법집회 등 혐의였다. '피고인'들은 '촛불문화제'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2005년 7.10일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와 한반도전쟁반대 7.10 평화대행진은 평화와 생명의 땅을 지키려는 정당한 합법집회였으며 미군부대철조망에 '소지천'을 단것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는 상징이자 미군기지확장반대의 자연스런 표현이었다고 했다. 일부 철조망 파손은 경찰의 폭력진압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또한 평택경찰서 앞 항의는 계획된 집회였거나 누구의 선동에서가 아니라 '대추리' '도두리'로 가는 모든 길목을 가로막고 평택범대위 이호성 상황실장을 부당하게 강제연행한데 대한 주민들의 항의와 석방을 요구하는 자연발생적 시위였다고 했다. 오히려 경찰당국이 항의하는 평택지킴이들보다 몇배나 더 많은 전경을 배치, 폭력 해산 과정에서 교통혼잡을 일으켰다고 진술했다. 한상렬 통일연대상임대표와 윤용배 평택범대위 기획위원장은 이 재판부가 김지태위원장에 대한 유죄판결과 실형선고 그리고 이날 오전에 있었던 전국연합 노수희 공동의장과 기아자동차비정규노조원들 그리고 민주노동당원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과 그중 3명에게 실형를 선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여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일은 그 무슨 촛불집회 신고여부니 교통방해니 미군부대철조망에 '소지천'을 달았으니하는 따위를 따지는,이나라 법정이 그렇게도 한가한 지 하는 답답함이었다. 평화와 생명의 땅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지고지순한 진정성, 동족을 겨냥하고 동북아 패권을 노린 침략기지건설에 엄청난 우리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법정은 남의 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답답함이었다. 주권국가로서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그리고 존엄과 이익에 과연 재판부는 어떤 가치판단을 할 것인지. 지난 13일 국방부는 평택미군기지확장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시위로 부지확보가 늦어졌고 이전비 지원분담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 때문에 주한미군기지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MP)의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공사일정차질이 불가피해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을 2012년이나 2013년께나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과 마스터플랜 등 없어 2008년까지 기지이전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당국은 주민들과 전혀 협의없이 '행정대집행'이니 '군사시설보호지역'이니 하는 일방적 조처로 대추분교를 때려부수고 볍씨가 움터 자라고 있는 알토란 같은 농토를 파헤치고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주민들 집을 부수면서 내쫓으려 했었다. 이 모든 부당한 행패에 평화 생명에 대한 신념과 민족적 양심에 따라 활동한 이들이 지금 법정에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당국자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이 9조5000억원 가운데 4조 9000억원을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정부가 4조 6000억원을 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미국은 한국이 5조 50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주한 미군을 이른바 북으로부터의 침공에 대비한 방위목적이 아니라 전략적유연성에 따른 아시아 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역할이 변경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따위를 비롯하여 미군기지이전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게 된 것이다. 엄청난 혈세가 동족을 죽이는 침략기지건설에 쓰여진다는데도 어떻게 민족적 양심이 이를 허용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돈을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사업에 쓰여진다면 남북 다같이 어려운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전경을 법정건물에 세우는 등 법정 밖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법정 안은 뜻밖에도 엄숙하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출석하는가 하면 검찰직접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화장실을 다녀오게 하였다. 한 피고인이 '왜 주먹으로 쳤는데 돌로 쳤다고 하느냐'며 검찰에 항의하자 '검사도 착오를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여 방청석에서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그만큼 법정안은 '피고인'의 정당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친절을 다하는 재판부의 속셈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김지태위원장 등 이미 1심 재판에서 평택지킴이들에게 무죄판결과 실형까지 선고하지 않았던가!

나의 평양방문기

강덕환 | 회원

| ❶김정숙 탁아소에서 2000년 92일 송환된 리재룡선생님 따님, 축복이를 안고 ❷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어린이들의 공연을 마치고 |

11월 10일 잘 다녀오라는 아내와 아이의 인사말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다.

쭉 뻗은 공항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필자는 이번 북녘땅을 찾는데 대한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 실험 이후의 비상한 시기인 만큼, 무겁게 가라앉는 양감의 상념에 젖었다.

공항 로비에 이르니 이미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이 낯선 얼굴들이나 그리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마도 이심전심 하나의 끈으로 이어진 동지의식 같은 게 아니었을까. 이번 방문은 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가 계획하고 추진한 2차지원방문단으로 필자는 양심수 후원회 일원으로 함께 했다.

베이징을 거쳐 고려항공에 탑승 이튿날 오후에 순안 공항에 도착하였다. 일행을 마중나온 민화협 지도부들과 간단한 환영 행사를 마친 뒤, 여러 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숙소를 향했다. 시내에 접어드니 대형 건물 곳곳에 걸려있는 각종 선전구호들이 평양에 온 것을 실감나게 해준다.

능수버들 늘어진 아름다운 보통강변을 지나 도심을 가로질러 대동강변 수려한 곳에 자리한 양강도 호텔에 도착한 일행은 호텔 관계자들의 지극한 환영을 받았다. 그렇게 평양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첫날 일정은 시간상 환영만찬 연회로 끝을 맺었다. 정덕기 북측 민화협 부회장의 인사말과 남측 권오헌 단장의 답사로 시작된 연회는 동포애 넘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90분 가량 이어졌다. 정덕기 선생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때에 소중한 의미를 담고 북을 찾아준 일행의 마음을 헤아리는듯 각별한 감사의 정을 표해 주었다. 권오헌단장은 초청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어떤 정세변화에도 남북사이에 공동선언 이행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답사했다.

이튿날, 첫 공식 일정으로 찾아간 곳은 줄기 줄기 굽이치는 청천강 강물을 거슬러 북으로 2시간 거리의 평북 향산군 묘향산 기슭에 자리한 국제 친선 전람관이다. 단아한 한복차림의 중년 여성이 일행을 반갑게 맞이한다. 여성안내원의 안내를 받으며 전람관 내의

여러 방들을 둘러보았다. 방마다 지구촌 도처의 많은 나라들에서 보내왔다는 크고 작은 진기한 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스탈린을 비롯한 구 소련 역대 수상들이 보낸 방탄리무진, 모택동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이 보낸 여러 가지 값진 선물, 레슬링의 영웅 역도산이 보내온 대형 방탄 승용차, 육대주의 많은 나라 지도자들과 저명한 각계 인사들이 보낸 각종 선물들이 100여개의 전시실에 무려 220,000점(1관)(2관-김정일국방위원장에게 보내온 전람관에는 53,000여점) 에 이른다 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은 남쪽에서 보내온 선물들로만 전시된 방이었다. 역대 여러 대통령과 조선, 동아, 중앙 등 언론계 ,삼성, 현대, 대우 등 재계,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각계 인사들이 보낸 각종 선물들고 채워진 방이었다. 여기서 필자는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로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 너무나 뜻밖이다. 놀라운 역설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수령님을 세계가 흠모하고 존경하며 그 명성을 높이 받드는 산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고 반문한다. 또한 "이런 위대한 영도자를 우리 수령님으로 모셨기에 우리 인민은 한없는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며 스스로 감격해하는 그녀의 해설 속에는 열정과 진지함을 넘어 차라리 장엄하다는 느낌이 풍겨난다.

관람을 마치고 전람관 주위를 둘러보았다. 현대적 건축양식에 청기와로 덮인 지붕이 독특한 미적 감각을 준다. 동행한 참사는 조선의 전통적 미를 가미한 주체형 건축양식이라 귀뜸한다. 이러한 전통의 미를 살린 건축물은 평양에서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사실 필자는 이동 중인 차 안에서 북측 안내원과 자리를 같이하는 기회가 많았다. 김정수, 37세로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와 사회활동을 거쳐 현재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필자가 이북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궁금증과 지적 욕구가 있음을 헤아린 듯 기꺼이 이웃자리 해주었고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기회를 가질 행운을 주었다. 만경대 김일성주석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집, 김주석이 8살 되던 해 부친을 만나러 홀몸으로 중국 간도를 간 이야기, 그때 부친 김형직은 항일 독립운동을 한 죄목으로 일제에 끌려가 심한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고 한다. 무거운 발길을 돌려 고향집으로 돌아오면서 강도 일제를 몰아내고 배앗긴 내나라를 되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며 나의 유년 시절은 이미 끝났다고 훗날 그의 저서를 통해 회고했다고 한다.

엄숙한 분위기에 설명은 이어진다. 김주석이 · 12살 되는 해 나라를 되찾으려면 자기 조국을 잘 알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험산 준령을 헤치며 배움의 천리길을 다녀온 이야기, 그리고 2년후 아직 소년티를 채 벗지도 못한 14살 어린 나이에 나라를 찾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며 어머니에게 눈물의 작별을 고하고 고향집을 나선 이야기.... 필자의 지나친 감성 탓인가. 가슴 뭉클한 감동에 젖어든다. 돌아서는 발길 주위에 은은한 감상을 주는 음악이 울려퍼진다. 김선생이 '사향가' 라는 곡은 '우리 수령님이 이국만리 타향에서 만경대 고향집을 그리는 마음을 담은 곡' 이라 한다. 필자는 스스로 반문해 본다.

우리는 북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미국적 가치 중심의 독선과 편견을 가진 눈으로 북을 보는데 익숙하게 길들여지지 않았는가. 편견은 오해를 불러오고 오해는 불신을 만들며, 오해와 불신이 쌓이면 증오를 낳는다.

우리민족 절반의 역사 북의 역사와 북의 진실을 부정의 역사로 죄악의 역사로 강요받고 살진 않았던가.. 그들이 그토록 굳게 믿고 말하고 있는 민족의 구원자 김일성 장군의 항일 무장 투쟁사는 몇몇 사람이 지어낸 설화인가. 그들이 긍지높이 쓰는 근대역사는 완전히 날조된 원인무효의 거짓 역사인가. 과연 그런 것인가.

필자는 개인적으로 북에 대해 오래도록 간직해온 풀 수 없는 숙제가 하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해답에 좀더 다가가 보려는 의욕을 가져본다. 그것은 북의 체제가 얼마나 견고한 내구성을 가지고 받쳐주길래 무너져 내리지 않고 건재한가 하는 본질적 물음이다. 사실 외부에서 가지는 일반적 상식으로는 북의 체

제는 90년대에 이미 붕괴되었어야 한다. 열 번이면 열 번 다 무너져 내려야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12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1994년 김일성 주석 서거 이후,TV토론 프로그램에 나온 많은 북한문제 전문가와 관련학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북의 붕괴는 불가피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심지어는 내부폭동, 군부반란 등등의 가설을 내세워, 3주간다, 석달간다 등등. 하기야 북의 체제에서 김일성 주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고 그 기둥이 무너졌으니 그대로 지탱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일, 그때는 필자도 그렇게 생각했다. 미국 또한 북의 핵 개발 계획을 묶어놓고 시간을 끌면 길어야 2,3년 내에 붕괴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해 제네바 협정에 합의해주었다는 말이, 미국내 여러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지 않는가.

그러나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붕괴 조짐은커녕 언론과 자신있게 떠들어대던 자들의 목소리는 잦아들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수년간에 연이어 터져나온 자연재해가지 겪으며 고난의 행군시기로 견디어 온 나라. 과연 그들에겐 그들을 떠받치는 어떤 힘이 있는가.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그 강인한 생명력의 근원은 어디인가.. 물어보았다. 그대 질서유지에 문제는 없었는가. 지방 도시 어디어디서 폭동 이야기도 들리던데.... 김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이 만들고 이끄신 집단적 공동체 사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온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묶어진 집단적 대가족 사회입니다. 같은 가족끼리 어떻게 서로의 것을 뺏고 해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을 다른 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우리 공화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이 마음 아파하실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민의 고결한 품성입니다."

가슴찡한 느낌을 받았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선생님은 우리 북조선 인민의 사상과 감정, 추구하는 꿈과 이상, 위대한 수령님을 향한 흠모의 정을 다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한다.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오욕 칠정, 그 중에 으뜸이 식욕이다. 식욕은 본능이다. 배고픔에 비례할수록 동물적 본능, 공격성을 띠게 된다. 조건 반사적인 것이다.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살아온 필자로서는 김선생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동물적인 본능이 강해서일까. 80년대 말 재미학자 한분이 북을 다녀와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온것 같다고 한 말이 문득 떠오른다. 그렇다, 우리가 살아온 사회와는 너무도 많이 다르다. 이상한 나라에 온 것이다. 그무렵, 루이제 린저는 북조선 방문기 <또 하나의 조국>에서 이렇게 말한다. 정확한 표현은 기억에서 희미하지만 뜻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북은 분명 더많은 민주주의, 더많은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할 아직은 일그러진 모습이지만 미래 인류사회의 희망과 이상적 모델의 원형을 북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는 북을 볼때, 내재적 접근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북의 입장에서 그 사회의 내면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이리라.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었을까.

사실 필자는 이번 방문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8.15 60주년기념 아리랑 공연 관람을 다녀간 적이 있다. 그 때 윤이상 기념관에서 민화협의 한 여성과 나

눈 이야기가 생각난다. 7천만이 힘을 합쳐 나누어져야 할 무거운 짐을 이천만이 감당해 왔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냐고 남녘 동포의 한 사람으로 커다란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주었더니 감동받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오른다.

자주권은 북에서는 생명과도 같다고 말한다. 개인이나 국가나 자주성을 상실하면 살아있어도 산 모습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주성이 생명과 같다면 주체는 자주성의 바램 위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신이며 사상이며 문화인 동시에 생활방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온갖 방법으로 북의 체제변화를 노리고 있다면 북이 느끼는 위기감은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주체에 의거한 정치, 문화, 사상, 예술,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두고 외부의 그 누군가가 너희들 것은 우리와 너무 다르다, 서구적 가치에 맞지 않으니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러니 버리거나 바꾸라고 강요한다면 옳은 일인가? 그것은 주권 국가에 대한 난폭한 도발이다. 금세기 인류 문명에 반하는 야만적인 테러리즘이다. 필자는 간절히 소망한다. 한반도에서 북을 향한 미국의 무력위협이 사라지고 전쟁의 검은 먹구름이 말끔히 걷히고 항구적인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되면 반세기에 걸쳐 전쟁상태에 준하는 긴장 속에 살고 있다는 북도 총을 내리고 그 손에 낫과 망치를 들지 않을까.. "그리되면 우리 인민은 경제 건설에서 앞을 보고 무서운 속도로 달려갈 겁니다." 윤이상 기념관에서 본 그녀의 말이다.

부흥하는 경제 속에 물질적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삶을 질을 차차 풍요롭게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긴장된 사회에서 통제되고 제약받아온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더 많이 신장되고 개선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평양을 떠나는 날 이른 아침, 단잠을 설치고 일행을 환송해준 일꾼 중 한 분이 공항에서 작별인사를 하였다. 우리는 모든 것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머지 않아 주체조선을 융성번영하는 강성대국으로 건설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안녕히 가십시요. 그리고 꼭 또 오십시요. 축축한 눈인사를 주고 받으며 작별의 아쉬움을 대신했다.

필자는 얼마전 통일뉴스 후원의 밤 행사에서 소중한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된다.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없을까". 저자는 철학박사로서 현재 카나다에서 종교철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신은희. 일면식도 없는 그녀를 이 책을 통하여 만나게 된다. 탁월한 통찰력과 7천만 겨레의 뜨거운 사랑을 간직한 그녀의 휴머니즘이 필자를 감동시켰다. 이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을 맺음말로 대신할까 한다. 그분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바라면서 끝으로 이번 방문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애쓰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

--도입부, "우리는 원한다 우리에게 금지된 것들을" 남과 북 우리는 한민족이었다. 수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왔다. 민족의 기상을 드높이며 광활한 만주 벌판을 함께 달렸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축복하고 죽은 넋도 위로할 줄 아는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향유하며 함께 살았다. 또한 우리는 우리만의 정서를 노래하는 우리말을 한다. 언어가 승화된 우리끼리의 침묵을 이해한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했고 나뭇잎 사이로 일렁이는 바람에도 번뇌하는 시인의 정서를 함께 느끼며 울었다.

처절한 식민지의 고통과 한을 그 고난의 세월을 체험하며 함께 절망했고 절규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아픔을 견디고 해방의 희열을 민족이 하나되는 그 벅찬 감동을 더불어 누렸던 민족이었다. 그러나 불행의 늪을 다시 지나야 했다. 서로를 증오하고 죽여야 했던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한국전쟁. 그 질곡의 시간을 지나 지금 남과 북 우리는 너무도 아프게 너무도 멀리 살아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것들이 금지되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잊으며 살았다. 때론 잊으며 살 것을 강요받기도 했다. 우리에게 금지된 것은 우리 하늘의 절반, 우리아픔의 절반,우리 진실의 절반이었다. 북의 혁명, 북의 문화, 북의 가치관, 북의 꿈과 이상,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 민족 절반이 간직해왔던 사상과 문화 그것은 우리에게 철저히 금지된 영역이었다. 이단사상이었고 범죄행위였고 위반의 역사였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 민족의 반을 알아가는 것이 죄가 되어야 하는가? 언제가지 우리 하늘의 반을 바라보는 것이 비난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우리는 그 잔인한 이념논쟁에서 해방되어 우리 민족을 민족으로, 우리하늘을 하늘로 자유롭고 사랑스럽게 만날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북의 주체사상과 혁명이야기는 여전히 사상적 불륜으로 남아있다. 위험한 작업이며 반 생명적 행위로 지탄받는다. 그러나 21세기 평화를 맞이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민족의 화해를 위해 평화의 뜻을 펼치기 위해 이제는 사상적 불륜을 과감히 감행해야 한다. 우리는 원한다. 우리에게 금지되었던 것을. 우리는 찾고자 한다. 잊어버렸던 우리의 반쪽 이야기들을. 잊어버릴 것을 강요받았던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반쪽의 역사와 그 고난의 이야기들을...

또 하나의 조국 북녘땅을 다녀와서

알립니다

북녁어린이 콩우유보내기운동에 양심수후원회가 함께합니다.

양심수후원회의 특별사업으로 채택되어 전개중인 '북녁어린이콩우유보내기운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핏줄 한민족인 남과 북은 서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 후원계좌 : 제일은행 159-10-001411
■예 금 주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평생 염원 못보시고 가신 김원철 선생님

27년이란 모진 옥고를 치루시고 출소하시어 대구 갱생보호공단시설에서만 19년을 살아오셨고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을 기다리시던 김원철선생님께서 평생 염원인 통일조국을 보시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비록 감옥에서는 나오셨지만 사회안전법에 이어 보안관찰법으로 공안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오면서 한 순간도 떠나온 교향과 그리운 가족을 잊지 못하셨지만 오랜 옥고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김원철선생님은 1918년 10.29일 평안북도 룡천에서 태어나시어 인근인 신의주에서 사셨습니다. 일찍이 바다와 배타기를 좋아하셔셔 청년시절엔 선박관리와 기관장일을 하시는 등 이른바 '바다꾼'으로 불리웠습니다. 1942년 조남승님과 결혼하시어 홀어머님을 모시고 부인과 1944년에 태어난 아드님과 함께 해방된 조국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시기 미군폭격으로 모든 시설이 파괴되고 있을 때 수산관계시설과 선박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고향에서 멀지 않은 철산수산사업소에 가시어 새로 배를 만들고 항만시설을 복구하며 선원교육을 시키는 등 전후 수산업건설에 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일사업과 관련, 소환에 적극 나서시어 1957년 남쪽에 내려와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셨다고 했습니다. 1959년 다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내려오셨다가 함께한 일행과 같이 체포되어 1961년 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부터 28년간 선생님은 여러 교도소를 옮겨 다니며 사상전향공작에 따른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특히 1978년 전주교도소에서 이른바 '통닭구이'를 비롯하여 고춧가루물고문, 의자에 몸을 묶어 놓고 야구방망이로 마구 패는 등 잔혹한 고문에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든 다음 확인된 것은 강제로 전향서에 모인을 찍힌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전향에 항의하여 선생님을 전향취소의 글을 담당부서에 냈지만 교도소 당국은 오히려 대구교도소로 이감시켰습니다. 1984년이었습니다.

1987년 70살 이상 고령자 석방조치에 따라 28년 만에 출소하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남녘땅에 아무 연고가 없었기에 교도소와 직접 관련기관이었던 당시 사법보호서(뒤에 갱생보호공단)시설에 신병이 인수되어 돌아가실 때까지 이곳에서 잡일을 하시며 사셨습니다. 사회와 사실상 격리된 또 다른 감옥이어었습니다. 이렇게 격리된 생활을 하셨기에 사회단체와의 관계도 갖지 못하게 되었으며 뒤늦게 대구. 경북양심수후원회에서 선생님을 찾아 뵈었고 마침내 선생님께서 그렇게도 염원하셨던 신념의 고향을 찾기 위한 2차송환 신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심성이 어질고 성실하며 바르게 생활하시어 도인같은 모습으로 주변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오셨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기도 했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정갈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건강을 지켜오셨는데 지난 8월 오랜 옥고의 후유증과 치매증상으로 대구적십자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으나 다시 악화되어 9월 7일 다시 입원하셔서 투병하시던 중 지난 11월 29일 0시 20분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지난해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주선으로 평양을 다녀오셨습니다. 비록 아무 연고없이 돌아가셨지만 평소에 모아두셨던 돈이 있어 묘지를 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다니시던 대구동일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했고 대구, 경북양심수후원회가 주관하여 묘소에서 옥중동지들과 사회단체성원. 서울양심수후원회 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통일염원비전향자기수 김원철선생님 추도식'을 갖고 선생님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비록 오늘 남녘땅에 묻히셨지만 빠른 시일 안에 고향땅 가족의 품으로 선생님의 유해를 모실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고히 잠드소서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신청해주세요!

그동안 바쁘고 번거로워서 회비를 못내셨던 분들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회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양심수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FAX : 02-888-4470 ■E-mail : yangsimsu@hanmail.net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매월 챙겨가며 은행에 회비를 납부해야하거나 자동이체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주세요.(874-4063)

성 명		예금주	
연락처		거래은행	
예금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 소			
후원금액	5천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 기타( )		

2005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출금일은 매월 5일이며 잔액부족 등으로 미이체시 15일 또는 23일에 이체됩니다.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6년 12월 15일 현재 총 106명 | 민가협 조사 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 날짜	적용 법규	형 량	만기 일	수감 지	가미결
임치진	노동자	건설노조(경기)	노조활동 관련	2006-10-13	공동공갈			수원구 340	미결
조기현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2006-06-15	집시, 공갈, 갈취	3년	항소중	대구구 79	미결
최규만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	2006-10-02	집시			포항교 3075	미결
지갑렬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8-23	업방, 폭력, 집시			포항교 3072	미결
김용조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37	미결
김종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37	미결
권일영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39	미결
최진동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40	미결
김봉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2년6월	항소중	대구교 35	미결
정갑도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42	미결
김명선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2년6월	항소중	대구교 34	미결
김중우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43	미결
진덕원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44	미결
김상은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 45	미결
진남수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하중근 사망 규탄집회	2006-08-17	집시			포항교 3071	미결
박웅희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41	미결
권영대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27	미결
김윤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 21	미결
이정모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 22	미결
김영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 23	미결
박성웅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 24	미결
김학노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2년	항소중	대구36	미결
최영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 26	미결
장재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8-14	집시			포항교 3068	미결
박득우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 28	미결
이지경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3년6월	항소중	대구교 29	미결
정은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2년6월	항소중	대구교 30	미결
정승종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2년6월	항소중	대구교 31	미결
김병걸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2년6월	항소중	대구교 32	미결
심진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2년6월	항소중	대구교 33	미결
신수복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 25	미결
유기수	노동자	건설연맹	8.9 노동자대회(포항)	2006-08-14	집시			포항교 3069	미결
최석영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08	업방, 폭력	1년6월+1년	2007/10	대구교 86	기결
박해욱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7-05	업방, 폭력	1년6월+1년	2008/01	대구교 52	기결
강상규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12-29	업방, 폭력	10월+8월	2007/06	부산교 874	기결
차헌호	노동자	금강화섬노조	노조활동	2006-09-29	업방, 특공			대구구 65	미결
김영성	노동자	기아차비정규직노조	파업	2006-10-17	업방, 폭력			수원구 337	미결
김문영	노동자	기아차비정규직노조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항의	2006-10-13	특공, 치상			평택구 207	미결
홍진성	노동자	기아차비정규직노조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항의	2006-10-13	특공, 치상			평택구 220	미결
박주승	노동자	민주노총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 투쟁관련	2006-10-16	집시, 특공방			순천교 109	미결
이태영	노동자	민주노총	건설노조(경기) 활동관련	2006-09-14	공동공갈			수원구 317	미결
김병일	노동자	민주노총(경북)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46	미결
김용직	노동자	민주노총(충북)	하이닉스 노조 집회 등	2005-06-13	집시, 특공	1년6월	2006/12	청주교 792	기결
송무근	노동자	민주노총(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07-13	업방, 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47	미결
황우찬	노동자	민주노총(포항)	하중근 사망 규탄집회	2006-08-17	집시			포항교 3070	미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일반노조	노조활동관련	2005-02-22	명예훼손, 정통법	3년+2월+6월	2008/10	영등포교 13	기결
박흥수	노동자	장흥교통노조	노조활동	2006-10-20	업방, 집시	10월	항소중	장흥교 425	미결
안준성	노동자	장흥교통노조	노조활동	2006-10-20	업방, 집시	10월	항소중	장흥교 425	미결
이민숙	노동자	전교조	교원평가 공청회 관련	2006-10-20	폭력			서울구 292	미결
이성대	노동자	전교조	교원평가 공청회 관련	2006-10-20	폭력			서울구 52	미결
고진오	노동자	전교조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2006-10-20	폭력			서울구 52	미결
연제일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2006-09-19	폭력			영등포구 3405	미결
박상길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2006-09-19	폭력			영등포구 3404	미결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 날짜	적용 법규	형 량	만기 일	수감 지	기미결
변외성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2006-09-19	폭력			영등포구 3403	미결
강성철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2006-09-19	폭력			영등포구 3402	미결
엄기준	노동자	㈜유성기업 노조	노동자대회(11.9)	2003-12-10	집시, 폭력	1년6월+2년6월	2007/12	대전교 2999	기결
오병용	노동자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조	복직촉구	2006-09-19	공방			청주교 204	미결
임헌진	노동자	하이닉스 사내하청노조	복직촉구	2006-09-19	공방			청주교 189	미결
하명학	노동자	하이닉스 사내하청노조	복직촉구	2006-09-19	공방			청주교 428	미결
양순직	노동자	하이닉스 사내하청노조	복직촉구	2006-09-19	공방			청주교 491	미결
송대균	노동자	하이닉스 사내하청노조	복직촉구	2006-09-19	공방			청주교 204	미결
김태윤	노동자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파업	2006-09-19	업방			울산구 36	미결
권수정	노동자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부	출입금지 가처분	2006-07-17	민사소송법	8월	항소중	대전교 70	미결
오지환	노동자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부	출입금지 가처분	2006-07-17	민사소송법	6월	항소중	대전교 6916	미결
김준규	노동자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부	출입금지 가처분	2006-07-17	민사소송법	6월	항소중	대전교 6734	미결
박정훈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	대량해고반대 농성	2005-11-05	특공, 치상	1년6월	2007/05	순천교 1300	기결
장철호	노동자	화물연대(대경)	파업	2006-11-25	폭력, 운송방해			대구구 64	미결
김완기	노동자	화물연대(대경)	파업	2006-11-25	폭력, 운송방해			대구구 92	미결
조영환	노동자	화물연대(대경)	파업	2006-11-25	폭력, 운송방해			대구구 63	미결
오세용	노동자	화물연대(대경)	파업	2006-11-17	폭력, 운송방해			대구구 52	미결
김동진	노동자	화물연대(대경)	파업	2006-11-25	폭력, 운송방해			대구구 73	미결
김대운	노동자	화물연대(전남)	파업	2006-12-02	폭력, 운송방해			순천교 268	미결
성기석	노동자	화물연대(전남컨테이너지부)	파업	2006-12-02	폭력, 운송방해			순천교 221	미결
손장민	노동자	화물연대(전북)	파업	2006-12-06	폭력, 운송방해			장수경찰서	미결
홍종선	노동자	화물연대(제천)	파업	2006-09-28	업방, 집시	8월	2007/05	강릉교 579	기결
박경연	노동자	화물연대(충청강원)	파업	2006-09-28	업방, 집시	8월	2007/05	안동 1127	기결
박재호	노동자	화물연대(포항)	파업	2006-12-04	폭력, 운송방해			포항교 3077	미결
김태상	노동자	화물연대(포항)	파업	2006-12-04	폭력, 운송방해			포항교 3076	미결
김지태	농민	대추리 주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2006-06-05	업방, 집시, 특공	2년	항소중	안양교 1841	미결
전욱용	재야	개인	북한방문	2004-11-18	국보	3년6월	2008/05	광주교 5009	기결
장민호	재야	개인	회합통신	2006-10-24	국보			성동구 33	미결
손정목	재야	개인	회합통신	2006-10-24	국보			서울구 113	미결
이진강	재야	개인	회합통신	2006-10-26	국보			서울구 3476	미결
최재영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3-06	병역법	1년6월	2007/09	진주교 1204	기결
박 철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11-07	병역법			영등포구 2426	미결
김훈태	재야	교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5-22	병역법	1년6월	2007/11	논산구 370	기결
최희정	재야	민권연구소	이적표현물	2006-08-18	국보			서울구 241	미결
김영진	재야	민주노동당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2-07	병역법	1년6월	2007/07	의정부교 1723	기결
이정훈	재야	민주노동당	회합통신	2006-10-24	국보			서울구 109	미결
최기영	재야	민주노동당	회합통신	2006-10-26	국보			서울구 3413	미결
박종기	재야	민주노동당	북한 방문	2006-10-23	국보			수원구 305	미결
문상현	재야	사회당(서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7-19	병역법	1년6월	2006/12	청주교 844	기결
윤치고	재야	사회보호법출소자모임	청송감호소 처우항의	2004-06-20	특가법	1년+6월	추가기소	춘천교 451	미결
강순정	재야	전 범민련	회합통신	2006-11-28	국보			서울구 197	미결
이용석	재야	전쟁없는 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8-18	병역법	1년6월		군산교 835	미결
김태훈	재야	전쟁없는 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5-17	병역법	1년8월	2008/01	군산교 1215	기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5-03	화염병, 치사	6년	2009/05	장흥교 11	기결
김학명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 화염병	3년	2008/06	홍성교 200	기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 치사	3년	2008/06	안동교 15	기결
김정덕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 화염병	3년	2008/06	경주교 500	기결
서창석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 치사	2년6월	추가기소	서울구 20	기결
오정록	재야	평화네트워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2-07	병역법	1년6월	2007/08	서산구 103	기결
송인욱	학생	서울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11-23	병역법	1년6월	2008/05	영등포구 2616	기결
박경수	학생	성공회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12-14	병역법	1년6월		성동구 1974	미결
김대형	학생	조선대	한총련불탈퇴(12.7)	2006-11-22	국보, 집시			광주교 5052	미결
고동주	학생	카톨릭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9-21	병역법	1년6월	2008/02	영등포구 2305	미결

01

<한미FTA저지 비상대책위>주최로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에서 한미FTA반대 범국민서명100만돌파 11월총궐기 기자회견을 연 뒤 비상시국농성에 들어가다. "한국정부가 공산품 분야에서 관세인하를 대가로 농산품 · 의약품 · 지적재산권 등 모든 분야에서 개방과 양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상할 이유와 정당성도 없는 불평등한 굴욕협상"이라고 지적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 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답변형식으로 '10.31일 중국 베이징에서 조미접촉을 기본으로 한 쌍무 및 다무적 접촉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방도적 문제를 논의했다'며 '우리는 6자회담 틀 안에서 조.미사이에 금융제재 해제문제를 론의 해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하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다.

02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제638회 목요집회를 열다. 임기란 전상임의장의 여는 말 권오헌공동의장의 일심회사건 조작 규탄발언, 서경순 전상임의장의 결의발언 등이 있었습.

민주노동당 방북 대표단은 평양 방문 이틀째를 맞아 조선사회민주당과 공식 회담을 갖고, 당면한 정세와 해법 등에 대한 양당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각 언론이 전화다. 문성현 민노당 대표는 공식회담제안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을 막기 위한 양당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자고 제안했고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은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이 평양을 방문한 것과 오늘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우리 두 당의 친선교류 뿐 아니라 6.15 공동선언 실천에도 무척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라고 보도하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중연대, 통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국민연대 소속 등 포함한 96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일명 '일심회' 사건의 피의자 가족들은 인사동 달개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다. 박석운집행위원장의 사회로 한상렬 통일연대상임대표의 여는 말과 권오헌 양심수후원회회장, 민변의 조영권사무차장, 민언련 김유진사무처장 등 규탄발언과 오종렬전국연합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6.15선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을 왕래하는 시대에, 만일 국정원이 무분별한 간첩단 사건을 기획수사하여 조작 또는 과장한 것이 이후에라도 확인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실정법적인 책임을 물을것임은 물론, 국정원이 본연의 설립목적에 충실하도록 국정원의 민주적 재편작업에 나설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다.

김대중도서관 후원의 밤이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리다. 이날 많은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단체와 통일운동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북미 직접대화 등 대화와 포용의 원칙을 강조하고 " 미국은 북한에게 '자기들을 못 살게 하니까 살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다'는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북한과 대화하고 주고받는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다. 권오헌양심수후원회장이 다녀오다.

03

수원지법 평택지원 재판부는 평택 대추리 김지태 이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치상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다. 김지태 이장이 공무집행방해회죄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것이라 기대하고 환영을 나온 70여명의 대추리.도두리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번 선고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는 동일한 사건에 비교해서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노무현 정권의 악랄함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라며 "유신 때 보다 더 잔혹, 유신 때 처럼 싸우자"고 분노하다. 평택지원 법정 정문 앞에는 경찰 3개 중대병력이 배치되어 주민들이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방청조차 가로막고 김이장의 부모조차 방청을 가로막는 악랄함을 보이다. 평택범대위측은 이번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국가정보원 정문에서 '민주노동당음해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집회'를 열다. 이해삼 최고위원과 이용규 민주노동당 사무처장 등은 대의사실유포 '간첩단사건' 발표를 규탄하고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다.

경기도 일산에 계시는 비전향장기수 신현칠선생님댁에 김수룡선생님과 모성룡 한찬욱후원회운영위원이 문안차 다녀오다.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는 서울 혜화동 방송통신대학교와 종로 일대에서 '민족자주 반전평화 실현을 위한 남북 청년학생공동 집회 및 행진'를 열다. 이날 문성순 청년학생본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김익석 상임대표의 대회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장송회 의장 등 결의 발언을 통해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엄혹한 정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평화는 그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해 언제나 청춘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은 대북제재 즉각 철회하라", "미국은 핵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남북관계 파탄내는 제재동참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학로에서 종로까지 행진을 벌이다.

04~05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006년 회원역사기행을 다녀왔습니다. 기행지는 우리 민족 수난과 저항의 산증거인 강화도를 찾았습니다. 양심수후원회회원 장기수선생님과 민가협어머님들과 함께 36명이 함께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신촌을 출발하여 강화지석묘를 찾은 다음 배를 타고 석모도로 건너가 보문사를 답사하고 바다를 전망하는 숙소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저녁식사 후에는 노중선(통일뉴스 상임고문)선생님의 북핵실험, 민족적 관점에서 대응하자'라는 주제의 명쾌하고도 멋진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틀째는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등을 돌아보았으며 강화대교 근처 갑곶돈대에 다다라 6.25 전쟁시 우익특공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지에 들러 가족과 이웃을 학살로 잃은 서영선님의 가슴 아픈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해 계속되는 역사기행이지만 갈수록 그

의미를 깊이 해주는 좋은 기행이었습니다. (후원회 소식지 181 호참조.)

일본 도쿄도 '고다이라' 시 소재 조선대학교 운동장에서 재학생과 일본전국의 민족학교 관계자와 학생, 내외빈 등 5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조선대학교 창립50돐 기념사업실행위원회가 주최하여 대축전이 열렸다고 통일뉴스가 보도하다. 방충우 실행위원장의 기념사, 통일원로 정경모 씨앞의 힘 대표의 격려사 조선대학교 장병태 학장의 인사말. 도쿄 고쿠사이대 '구니기로. 마사오교수와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끼 등 축사를 하다. 또한 대강당에서는 '모란꽃 파는 조선의 노래' 라는 주제로 기념공연이 있었고 교정 곳곳에서는 기념축제 천막장터가 열리다. 또 다른 교정에서는 '6' 15시대의 통일조국을 전망한다'라는 주제로 통일세미나를 열고 6.15남측위공동대표인 명진스님의 축사, 리영수조선대 문학역사학부 교수와 남측에서 정창현현대사연구소장이 발제를 하다.

06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와 의문사유가족대책위는 '고문기술자'로 널리 알려진 이근안씨가 출소한 것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도적범죄' '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원이 간첩으로 조작됐던 함주명 사건과 병사로 조작되었던 박영두 사건, 의문사 최종길 사건, 간첩으로 조작됐던 수지김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이는 국가가 시효의 울타리 뒤에 숨어 배상 책임을 면할 순 없다는 전향적인 판례가 더욱 확고해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제라도 서둘러 온전한 입법과 대책을 만들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촉구하다.

프레스센터 13층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1967년 '동백림사건' 피해자인 재독의사 이수길박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상대로 피해보상청구를 하겠다고 밝히다. 이수길박사는 당시 이사건 관련자로 독일에서 서울로 강제연행되어 조사를 받다가 무혐의를 풀려난 바 있음

07

통일연대 , 전국민중연대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으로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니컬러스 번스미 국무부 정무차관방한반대 한미차관급전략대화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이규제범남북의장의 여는 말, 이승호 한청의장, 평통사 유영재사무처장 등 규탄발언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6자회담을 앞두고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가 등 사실상 회담파기 행동을 논의하는 한미차관급 전략대화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대북제재 중단, PSI참가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상임대표 권오헌)'와 '의문사유가족대책위(위원장 허영춘)' 공동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제정 촉구 기자회견' 을 열다. 권오헌계승연대상임공동대표의 여는 말, 이원영 열린우리당의원 허영구민주노총부위원장 허영춘의문사유가족대책위 위원장의 제정촉구 발언을 통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법률이 발의(대표발의 이원영 의원 등 146인)된 지 15개월여가 지나도록 국회 법사위에서는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공청회마저 일정도 잡지 않고 있어,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의한 피해자들의 통한의 눈물이 쌓여만 가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위한 '공소시효' 조항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의 면죄부를 주는 보호막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다. 아울러 "우리는 과거 인권유린과 고문을 통한 조작사건 피해자들의 사법적 진실과 명예회복,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재발방지 등 인권의 보호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히다.

08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가', '대북 전쟁불사' 주장을 펼치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규탄하다. 이들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안보장사를 하며 대권을 노린다면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각없이 처신하는 사람에게 '정신차리라' 는 의미에서 냉수 먹고 속차리라는 말을 쓴다"며 한나라당에 '냉수' 를 전달하는 상징의식도 가지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대책위원회는 오전 10시 대추리 4반 입구(김지태 이장 우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평택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일대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에 2.8Km 구간에 걸쳐 2차 철조망 작업을 강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평택지킴이 등 9명을 강제연행하여 부천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음. 대추리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물과 철조망 설치, 김지태 위원장의 실형선고를 통해 주민들의 투쟁의지를 약화시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환수하려는 정부 당국의 비열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평통사상임공동대표 등 경기도경에 가서 항의하고 권오헌양심수후원회장도 전화로 도경찰청에 항의하고 즉각 석방을 촉구하다

09

'한국언론재단 20층에서 한일협정 체결 이후 민족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친일연구에 일생을 바쳤던 고 임종국 선생의 뜻을 기리는 '임종국상' 시상식이 열리다 함세웅 조정래 위원,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병화 기념사업회장 이이화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학술부문 등 총 4개 부문에 대한 시상을 하다.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수사했던 이른바 <일심회사건>과 관련 장민호 이정훈 손정목씨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송치하고 최기영 이진강씨는 13일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지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간첩단의혹사건공표 및 언론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회복에 엄중히 항의한다 '는 성명을 내다. 또 공동변호인단은 9일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강압수사 행태와 관련해 고소고발, 국가배상 청구 등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검찰도 수사지휘자로서 그동안의 위압수사 책임자를 밝혀 책임을 묻고 엄정한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그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다.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양심적 병역거부연대회의 등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밝힘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이 보장되도록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이행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자유권 분야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는 것은 한국의 인권수준이 아직도 국제적 인권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라며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을 지적하고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권고들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야만 한다"라고 목소리 높이다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제 640회 목요집회를 열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오전 11시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주민탄압인권유린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의 여는말. 문경식전농의장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 민주노총 진경화 통일위원장등 규탄발언과 홍근수평통사 상임공동대표의 지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 중인 변호사에 대한 물리력 행사, 강제퇴거조치를 강력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일심회' 사건 피의자들의 변호인이, 신문참여 도중 변호권을 제한받고 강제로 퇴거당하였다는 사실을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과 결정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심각한 도전일 뿐 아니라, 변호권 및 자백을 강요받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 아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 행위이다"라고 말하다.

서울 광화문 한국통신 앞에서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로 자이툰 부대 연장이 아닌 철수이유가 분명해진 것" 이라며 자이툰 부대의 철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오종렬 상임대표는 "정부는 레바논 파병계획을 철수하고 이라크에는 체니와 럼스펠드를 보내야 한다"고 말하다. 민주노동당 김은진최고위원, 평통사 유영재 사무처장 등의 결의발언이 있었음.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에서 북녘어린이를 위한 영양빵우유 콩우유공장지원사업과 관련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의 초청으로 이날 2차 지원사업방문단(단장 권오헌)이 4박5일 일정으로 평양으로 떠나다. 처음에 이북의 고려항공의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으로 가기로 했으나 남쪽 당국의 부당한 고려항공 입항불허로 중국 북경을 거쳐 평양으로 가게 되다. 양심수후원회 에서는 강덕환 송창학 권오헌님이 함께 하다. (관련기사 참조)

11

'겨레하나' 2차지원사업 방문단은 북경공항에서 이북의 고려항공으로 평양에 도착, 북측민화협 지도부의 마중을 받고 양각호텔에 짐을 풀다. 저녁에는 호텔연회장에서 북측 민화협이 주최한 환영만찬이 있었음 만찬에서는 정덕기 북측 민화협 부회장(6.15북측위 부위원장)이 환영사를, 남측의 권오헌단장(양심수후원회회장)이 답사를 하다.(기사참조)

12

'겨레하나' 방문단은 평양방문 이틀째를 맞아 묘향산을 찾아 국제친선전람관과 보현사를 관람하고 평양으로 돌아와 1866년 미국의 해적선 셔먼호가 응징당했던 곳에 1968년 원산 앞바다에서 정탐행패를 하다 붙잡힌 미국의 무장첩보선을 끌어다놓은 바로 '프에블로호'를 답사하다.

시청앞 잔디광장에서 민노총 주최로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총파업 투쟁승리' 제 18차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다. 금속산업연맹을 주축으로 한 노동자대회는 22일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독려하며 단결 투쟁을 결의하다. 전국에서 3만5천여 노동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금속연맹 임원들의 삭발식에 이어 오직 모든 노동자의 단결이라는 숭고한 승리를 담보하자고 호소하다. 전태일노동상 시상식. 조준호위원장의 대회사 정광훈 전국민연대상임대표의 격려말. 전농 전경식의장 한국영성단체연합 남윤인순대표 등 연대사가 있었음. 대회에서는 제38차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4대요구를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고 마지막으로 머리위에 드리운 어두운 천을 찢는 상징의식을 갖고 단결투쟁가를 부르며 대회를 마치다

13

통일연대 등 51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한남동에 위치한 주한슬로바키아대사관 앞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사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 전국연합 오종렬 공동의장,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승호 의장 등은 제재 위원회 위원장국인 슬로바키아에 "6자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라도 유엔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철회하고 북미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다. 슬로바키아 대사관은 1주일 전부터 요청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의 면담신청을 끝내 거부하여 서한문만 전달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주한슬로바키아 대사관 외에 유엔 안보리 15개 상임이사국 대사관에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다. 슬로바키아는 대북제재위원장국임.

'겨레하나' 평양방문단은 3일 째를 맞아 김일성주석 고향 만경대생가와 개선문, 주체사상탑,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창광유치원. 김정숙탁아소.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을 돌아보고 저녁에는 양각호텔 연회장에서 남측방문단이 주최하는 환송만찬이 있었고 권오헌단장과 정덕기 부회장이 각각 감사인사말과 답사가 있었음.. 한편 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은 2000년 9월2일에 송환된 비전향장기수 63명과 리인모선생님께 꿀 64병을 구입하여 편지와 함께 보내드렸음. 김영옥선생님과 강덕환 송창학 권오헌이 함께 함(관련기사참조)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후문 앞에서 '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상임공동대표 문규현.홍근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방위비 분담 협상중단 및 특별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

다.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2007년도부터 적용될 '한미방위비분담 7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이 열리는 가운데, 평통사는 외교통상부에 보내는 의견서를 공개발표하고 "불평등한 한미소파(주둔군지위협정)도 주둔미군 경비 배분 원칙으로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되 모든 미군 운영 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방위의 한국화와 주한미군 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과 협정기간의 장기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중연대 전국빈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에 '집회시위의 권리 가로막는 경찰 규탄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사회자로 나선 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사회로 정광훈상임대표의 여는 말, 민변,조영선사무차장 전국빈민연합 김홍현 등 규탄발언과 민주노총 진여옥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난 9월 17일 <집회시위의 현장대응 강화지침>을 통해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도심 집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금지 통고하고 기자회견이나 문화제에 대해서도 불법집회로 판단되면 현장검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경찰의 주장과는 반대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집회시위현장에서의 경찰의 관행적인 폭력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협당하고 있으며, 집시법은 개정될 당시부터 국내인권단체와 법률단체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위헌성을 지적받은 바 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찰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다.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진행된 인혁당재건위 사건 재심 13차 공판(형상23부, 문용선재판장)에 한찬욱운영위원 함께 하다.

'겨레하나' 방문단을 평양을 떠나 북경을 거쳐 4박5일의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돌아오다.

이북 남자 청소년축구 대표팀(19살 이하)이 일본을 누르고 아시아 정상을 차지하다. 여자 청소년 대표팀이 지난 8월 모스크바 세계대회에서 압도적인 전력으로 정상을 차지한데 이어 남자팀이 다시 국제대회를 제패하는 쾌거를 이루어 입구 축구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인도 콜카타 솔트레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 아시아청소년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이북팀은 연장까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명의 선수가 착실히 득점을 올려 첫 주자가 실축한 일본팀을 5-3으로 꺾었다. 이북 대표팀 조동섭 감독은 승리의 영광을 조국에 돌리면서 "우승컵을 거머쥐어 행복하다. 그러나 내년 캐나다 세계선수권까지 이 쇼를 이어가야 한다"고 기염을 토했다. 북 김금일은 최우수선수상, 이북팀은 페어플레이상을 받았슴.

14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평통사 등 시민단체 공동으로 제86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가 열리다. (평통사)' 미군문제팀 이형수 국장 등 결의발언이 있었고 실천연대 권오창 상임대표가 낭독한 '미대사관에 보내는 요구서한'에서는 "이에 우리는 부시정권이 중간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일방주의를 거두고 북과의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뒤 집회를 마치고 요구서한을 미대사관에 전하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대북인도적지원단체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의 '2006년 후원의 밤'이 밤이 열리다. 전농림부장관이었던 김성훈후원회장의 인사말, 최병모이사장의 환영말, 백낙청 6.15남측위상임대표 윤만준 현대아산대표이사등의 축사와 김형수시인의 축시 '평양비가 내린다' 낭송. 영상기록 '지원협력을 넘어' 우리겨레에 평화를 '상영이 있었음

광화문 파이낸셜빌딩 앞에서 대북제재반대 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국농성단 주최로 '비상시국선언 30일 촛불문화제'를 열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여는 말. 범민련 유영빈대회협력부장, 농성실천단장 이승호한청의장 등 결의발언과 문화공연 등이 있었음.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 유가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 ' 등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강민조 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며 "몇일 남지 않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과거사법의 개정과 관련 법률의 제정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한다고 밝히다.

광화문우체국 6층 통일부 '북한자료센타'에서 양심수후원회가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영화보기 11월 모임을 갖다. 이번 영화는 '민족과 운명' 제28부(노동계급 편 제4부)가 상영되었으며 통일광장 김수룡. 김영승. 송세영선생님과 김래곤 이순영 한찬욱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하다.

15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유엔대북인권결의안 상정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총회에 상정돼 17일 표결을 앞둔 대북인권결의안에 정부는 단호히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하다. 항상렬 상임의장의 여는 말, 이승호 한청의장 김동원 민노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등의 결의발언과 서총련 김하얀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외교통상부를 향해 "정부는 인권을 무기로 한 대북압박에 동참하지 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30분에 걸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다.

인사동 아리랑식당에서 개최된 민족일보복간공독추진위원회 3차회의에 권오헌양심수후원회장 한찬욱운영위원이 함께 하다.

필동 진실화해를 위한 정치위원회 앞에서 KAL858기 가족회와 KAL858기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범국민위원회 공동으로 'KAL858기 사건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회 진실규명신청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정하다. 참가자들은 차옥정 가족회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조사발표는 가족들에게 심한 배신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다며 더이상 이사건 희생자들과 가족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다.

16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한미FTA저지범국 본 대표자회의를 열고 "11월 22일부터 한미FTA협상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갖고자 한다"고 밝히다. 참가자들은 대정부요구안으로 한미FTA협상즉각중단 광우병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즉각중단, 축소된 스크린쿼터원상회복, 사회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시장개방화중단, 노동기본권보장, 사회양극화해소 등을 촉구하다.

서울역 전국연합회의실에서 6기통일연대 5차대표자회의가 있었음 회의세서는 시국농성 등 활동보고 재정보고 6.15남측위 보고 평택범대위 FTA범국본 보고에 이어 상설연대위 구성과 관련한 의제를 만장일치로 합의했고 11.22 총궐기투쟁 등을 논의하다.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제 640회 목요집회를 열다. 이른바 유엔대북인권결의안 비판 등 권오헌공동의장의 여는 말, 임기란 전상임의장 등 최근의 인권침해사항규탄발언이 있었슴

공덕동 계승연대 사무실에서 계승연대 '43차상임대표자를 권오헌상임공동대표 주재로 열다. 활동보고 재정보고에 이어 민주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민건추'를 조직 창립문제, 민주유공자법제정, 민주화법개정투쟁 등을 논의하고 11월' 24일 '반인권적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제정촉구 토론회'를 열기로 하다.

17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이 이남이 찬성한 가운데 17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제3위원회는 찬성 91, 반대 21, 기권 60표로 대북인권결의를 채택했다. 이번 결의에서 은 제3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중순쯤 유엔 총회에 상정돼 최종 채택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결의는 중국은 "특정 국가 문제에 대해 유엔 결의로 압력을 가하는데 반대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다. 이북 대표부는 표결에 앞서 성명을 통해 미국이 정치적 목적에서 문건들을 조작했다면서 "누가 이 결의를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이번 결의는 오만하고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 인권은 국가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반발하다. 한편 통일연대 등 50여개 시민단체는 광화문 외교통상부앞에서 정부의 대북인권결의한찬성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김을수 민자통의장이 낭독한 회견문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은 미국이 주도하여 북정권 붕괴를 노린 정치공세'라며 '인권을 빙자한 대북압박은 6차회담에 난관을 조성할 것이며 특히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규탄하다.

서초동검찰청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와 민노당공동으로 구가보안법폐지와 이른바 일심회조작사건 관련자 석방촉구결의대회를 열다. 권오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상임공동대표의 대회사, 김은진민노당 최고위원 임기란 민가협 전상임의장 등 결의발언이 있었음

대구갱생보호공단 시설에 계신 출소장기구금양심수 김원철선생님께서 입원하시어 양심심후원회 권오헌대표가 문병을 다녀왔음. 올해 88세이신 김원철선생님께서는 오랜 옥고의 후유증과 노쇠에 따른 치매현상으로 지난 8월과 9월9일에 대구적십자병원에 입원하셨으나 11월 9일부터 식사도 못하시고 사람을 알아보시지 못하여 병원당국에서는 1개월을 넘기시기 어렵다고 말하다.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이용우 운영위원과 윤보현 사무국장이 함께 했음

창미디어에서 후원회소식지 181권 최종교정 후 기획사에 넘기다. 여혜정 임미영 함께 하다.

18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18일 남측 정부의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표결과 관련하여 "남조선 당국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찬성은 6.15공동선언의 기초를 파괴하고 북남관계를 뒤집어 엎는 용납못할 반통일적 책동"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이미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압력책동에 맞장구를 치고 동족 사이에 인도적 사업마저 외세에 팔아먹었고 집단적 제재에도 가담함으로써 북남관계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해 놓았다"며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동조에 나선 남조선 당국의 이번 책동은 그들이 저지른 반민족적 범죄에 죄악을 덧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족의 존엄과 이익보다 외세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을 지탱해나가는 자들은 우리와 상종할 체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다. 또한 "우리 공화국을 붕괴시키기 위해 조작한 허위모략이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위력 앞에 겁을 먹은 자들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며 "인민 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제도 하에서는 인권문제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금강산 호텔 앞 마당에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주최로 '1만2천금강산지킴이발대식'을 갖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금강산 1만2천명의 기행을 추진키로 다짐하다. 최병모이사장의 여는 말, 윤만준 현대아산사장의 감사의 말, 한상렬 통일연대대표의 축사 등이 있었고 인천겨레하나회원인 김성국씨와 아들 선하초교 상욱군이 '지킴이 행동수칙'을 선서하다.

종로 승인동현장에서 강경대열사 기념관개관식이 있었음. 1991년 경찰폭력으로 산화해 간 강경대열사 기념관은 광주에 있었지만 이를 정리하고 이번에 다시 서울에 기념관을 열게 되었음. 문치웅씨 사회로 기념관개관경과보고 등에 이어 박중기 추모연대의장 강희남목사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 이영 민가협상임의장과 임기란 전상임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등 축사와 이기형 시인의 축시낭송이 있었음. 이어 강민조유가협이사장의 가족인사 말씀이 있었고 현판개봉의식이 있었음

19

인천 백석동 천주교공원묘역 이재문선생묘소에서 '고 중덕 이재문선생25주년 추도식' 이 있었음. 남민전관련동지들과 사회단체 성원 등이 함께 한 가운데 박석률동지 진행으로 추모의례에 이어 약력 소개, 추모시 낭송(임규영), 추도말씀(권오헌), 회고말씀(이기형시인 안재구선생)등과 통일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마치다.

금강산 신계사에서 남북불교인 등 3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금강산 신계사 남북(북남)공동낙성식' 을 갖고 평화통일을 발원하다. 2004년 대웅전 낙성식에 이어 2년 만에 극락전과 다한전 등 7개 동이 완공되어 이날 두 번째 낙성식을 갖다. 낙성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지관총무원장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 류영선위원장이 함께 했고 현정은 현대아산회장 김원웅의원, 정세현 민화협상임대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겨레하나 최병모이사장이, 북측에서는 조불련소속 승려들과 명승지 종합개발회사 장우영사장, 문화보존지도국 리의화부국장, 아태평화위원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함께 했음. 남측 혜영스님과 북측 유인명스님의 공동사회로 북측 조불련 정서정서기장의 개막사. 남측 신계사복원추진위 집행위원장 지원스님이 경과 보고를 했고 지관총무원장과 류영선 조불련위원장 김원웅의원 윤만준사장 리의화 문화보존지도국부국장 등의 축사가 있었음.

20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미주지역 동포들과 미국 반전평화운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 미군기지확장계획 전면 백지화와 이라크 파병부대 철군, 한미FTA 중단 등을 한미당국에 촉구하다. 22일 민중총궐기에 연대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방한한 신디 시핸은 (아들 케이시를 2004년 4월 이라크 전쟁에서 잃었음) "한국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을 즉각 중단해야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이라크를 점령하는 미국군에 도움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전하다. 그는 특히 평택 주민들에게 연대의 뜻을 전하며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지태 팽성주민대책위원장의 어머니 황필순 여사를 만나 격려하다.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22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대회 등을 금지시킨 경찰에 강력히 항의하며 평화집회 보장과 헌법준수를 촉구하다. 경찰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시청 앞과 교보소공원까지의 행진 등 청와대 근처 100미터 외곽 13개 지점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질서 위협과 주요 도로상 교통 혼잡 유발 우려' 를 이유로 모두 금지시켰다. 범국본은 "경찰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실현해 나갈것"이라고 천명하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후원회소식지 제181호 발송작업을 하다. 문상봉 안학섭 선생님 민가협 조순덕어머니 이득형 송창학 임미영회원이 함께 하다.

21

후원회소식지 181호를 국내회원1032명에게 발송하고, 영치금 및 소식지 민족21을 양심수 94명에게 보내다.

22

서울시청앞 시민광장에서 노동자 빈민 청년 학생 시민사회단체 성원 등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동기본권쟁취' '사회양극화해소' '한미FTA저지 범국민충궐기 대회' 가 열리다. 사전문화행사에 이어 박석운 집행위원장사회로 오종렬민중연대상임공동대표의 대회사, 한미FTA, 각 부분대표의 결의발언, 미국에서 온 반전평화재미협의회대표의 연대사가 있었음 이어 미국산 쇠고기가 그려진 대형그림판에 대표들이 달걀을 던지는 상징의식과 대회결의문을 읽다. 이어 궐기대회를 마치고 을지로-남대문 청계를 거쳐 청계광장에 까지 촛불행진을 하고 촛불문화제가 진행되다. 민주노총 조준호위원장 전농 문경식의장 등 결의발언과 청소년참가자들이 광우병쇠고기 피켓을 들고 나와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상징문화행사와 노래패 몸짓패들의 문화공연이 있었음. 이날 서울역광장 등 전국적으로 민노총이 주도하는 전국 총파업궐기대회가 진행되다. 이날 집회시위를 경찰이 불법으로 천명한 가운데 전부 15만 명이 가두시위에 참가하고 지방에서는 시청, 도청을 점거하는 강도 높은 저항이 있었음. 경찰은 서울에서 77개 중대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4만병력을 배치하고 전국적으로 경찰폭력으로 59명이 크게 다치고 광주지역에서 21명, 대전에서 7명이 연행되는 등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큰 저항이 있었음

23

민가협 641회 목요집회가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리다. 이날은 한국의 반전평화.신자유주의반대운동에 함께 하고 있는 '전쟁과 신자유주의 반대 재미협의회' 등 방한투쟁단은 민가협 목요집회에 함께 참석해 이라크파병부대 철군, 평택미군기지확장 중단, 양심수 전원석방 등을 촉구하며 민가협어머니들과 한목소리를 내다. 신디 시핸은 평택미군기지확장에 저항하다 구속수감된 김지태 이장 어머니 (황필순 여사)와 만나 격려와 위로를 나눈 이야기와 부시 행정부의 패권정책에 희생된 아들의 이야기를 서울시민들에게 전하다 또 민족시인 이기형 선생이 참석해 '반전 어머니' 에게 전하는 시를 낭송하다.

장충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이 단체 주최로 박한식 미조지아대학교수를 초청 '최근북한체제분석과 전망' 이란 주제 강연회가 열리다. 강연에서 박교수는 유엔안보리 대북재결의는 완전한 실패작이라며 미국과 서방국들의 북에 대한 허상에 근거했기 때문' 이라고 하다. 오히려 1.김정일국방위원장은 유능한 정치지도자이고 2.북정권은 결코 붕괴되지 않으며 3.다자간 압력은 오히려 역효과만 남을것이라 하다. 또한 북을 옳게 이해하려면 1.민족주의 2.유교사상 3.선군정치를 알아야한다. '고 하다.

24

서울여의도 국회 앞에서 '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은 '평화군축집회' 를 열고, 국방예산 중 주한미군에게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 등 약 2조원을 삭감할 것을 촉구하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9.7% 증액해 24조 6,967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집회에서 평통사 박석분 평화군축팀장은 "국방부가 올해 국방예산 편성 방식을 방위력개선

비, 전력유지비, 병력운영비 등 3가지로 변경했다"며 "방위력개선비, 전력유지비 두 가지를 합치면 15조원에 달하는 데 이 돈은 대부분 미군무기를 사들이고, 미군기지를 운영하기 위해 쓰는 돈"이라고 지적하다. 참가자들은 국회에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전력증강사업들은 하나같이 첨단 공격무기체계들로서 '방위역량'을 뛰어넘어 우리 군의 '대북 선제공격을 갖추기 위한 전력증강사업"이라고 지적하다.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국회의원 이원영의원실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 위한범국민위원회 공동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재정 촉구토론회'가 열리다. 권오헌 계승연대상임공동대표, 강민조 유가협이사장, 이원영 열린우리당의원, 문병호 법사위법안심사위원장 등 인사말에 이어 이덕우 계승연대 명예회복위원장사회로 민변 권영국변호사가 '국가의 신의칙(信義則)문제와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이란 발제를 했고임종인 열린우리당의원, 이영순 민주노동당의원. 방해전 5,18아람회동지회공동대표, 서우영올바른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사무국장 등의 지정토론이 있었음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기념관에서 불교인권위원회 주최로 불교인권위 제17주년 기념법회 제12회 불교인권상시상식 및 진관스님, 홍근수목사출판기념식이 열리다. 불교인권상은 부산불교평화연대상임대표 황정스님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신보라회장이 수상하다. 제3부 출판기념회에서는 진관스님의 '감옥으로 보낸 편지' 홍근수목사의 '양키 고우홈'에 대한 저자들의 인사말과 정상덕교무(원불교) 임기란 전상임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강민조 유가협이사장 등 축사와 이철기 동국대교수의 서평이 있었음

공안당국은 이날 현재 확인으로 총궐기대회 관련자 92명에 소환장을 발부(서울6명) 경기7명, 대구5명, 강원7명, 충북11명 충남33명 전북4명 전남 12명 경남5명 제주2명)했고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희망연대 허연상임대표 등 40여명에 이를것으로 예상되며, 대전 충남지역은 김용우 상임대표등 37명에 충북지방은 도민운동본부상임대표. 집행위원장 등 2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또한 이날 새벽 검, 경은 전농, 민조노총. FTA범국본 한농연, 통일연대 등 지역본부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

용산 국방부 앞에서 무건리훈련장 확장으로 강제 이주될 처지에 놓인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주민들이 24일 상경집회를 열다. 이날 집회에는 무건리대책위 소속 주민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20여명이 함께 했으며 '매향리주민대책위' 전만규 위원장이 참석해 연대를 다짐하다. 무건리훈련장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현재 550만평에서 1100만평 규모로 확장시키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무건리훈련장 백지화 대책위(무건리대책위)' 윤병설 위원장은 "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무건리훈련장 확장계획을 즉각 중지하라"고 호소하다. 이들은 오후 12시 50분경 집회를 마치고 국방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지고 요구서한을 전달하다.

25

전용철 열사1주기를 맞아 충남 보령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모식이 열리다.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전용철 열사의 지인들이 모여 열사의 정신을 기린 이날 행사는 충남 보령에서 쌀협상 국회비준에 반대하며 투쟁했던 그 정신을 이어가는 의미를 담아낸 쌀 모양의 추모비 제막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전농의 문경식 의장의 추도사에 이어 민중연대 박석은 집행위원장은 "다시는 경찰에 맞아죽지 않는, 우리 농업과 산업, 강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자"며 말을 맺다.

27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인혁당재건위 사건 재심 14차공판(형사23부 문용선재판장)에 한찬욱운영위원 방청하다.

28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고 하중근열사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하중근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경찰에 대한 권고안에 관련하여 대통령 사죄와 경찰책임자 즉각 파면을 촉구하다. 이 날 회견장에는 경찰병력 4개중대 이상이 배치되고 경찰차량이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경찰의 방해가 극심한 가운데 열리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는 "경찰이 하중근열사의 죽음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포항건설 노조지도부는 발언을 통해 노무현대통령은 경찰의 살인폭력진압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살인진압 경찰책임자인 경찰청장과 경북도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경찰의 살인폭력진압 시스템을 혁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경찰의 집회시위 일괄금지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다.

광화문외교통상부 앞에서 평통사 등 주최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촉구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금 50%감축과 1년단기협정체결을 주장하다. 박석분 평화군축팀장 등의 결의발언과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외교통상부장관면담을 요구하며 청사로 진입하여 했으나 경찰제지로 대표단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30일까지 농성에 들어가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제 18차년도 제 7차운영위원회'를 열다. 10월 활동보고와 재정보고 등에 이어 12월 10일 '2006년 회원송년모임' 재정확보문제 등 논의하다. 김지영 김호현 이득형 모성룡 장경욱 권오헌 임미영 함께하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서서 한.미FTA저지범국본과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운동본부 공동으로, 광우병미국산쇠고기 전면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공동대표. 오종렬 전국연합상임대표 등 수입중단촉구발언과 윤금순 전여농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정부 국무회의에서 현대 2300명규모의 자이툰부대병력을 2007년 초까지 1200명으로 줄이면서 파병을 1년 연장하는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과 특전사대원중심의 PKO부대원400여명을 레바논에 파병하는

안을 통과시키다. 또한 아프카니스탄 주둔' 다상'' 동의 '부대도 1년연장하는 안을 통과시키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민족일보조용수사장사법살인사건과 관련 '국가의 중대한 위법'을 인정하고 진실규명결정과 함께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권고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용수사장을 처벌한 근거가 된 법률들이 모두 위헌적인 5.16군사쿠데타세력이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다. 바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은 국민주권주의 및 입헌민주주의에 정면 배치되고 있으며 이 특별법이 3년 6월까지 소급 적용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혁명재판소의 2심제도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힘

29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와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는 금강산 온정리 문화회관에서 '6.15공동선언 실천과 남북 언론인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북측 언론분과위 조충한 부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이번 만남은 6.15선언 실천을 위한 통일언론으로 나가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회합"이라면서 "동족 대결의 낡은 냉전시대 관념에서 벗어나 조국평화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는데 언론인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6.15시대 대변자로서 남북 언론인들은 민족 문제에 대한 간섭과 전쟁위협을 단호히 반대 배격한다"고 밝히다.

민중총궐기가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민중들이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시위에 동참하다. 서울에서는 3천 여 명의 노동자, 농민과 시민들이 동대문, 청와대, 국회 앞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한미FTA협상 중단'과 '비정규양산법안의 철회' 그리고 '초법적 기본권 유린 중단'을 요구하며 가두시위와 집회를 가졌다. 광주에서도 광주의 명예를 더럽힌 박광태 시장을 규탄하는 대회가 금남로에서 열렸으며 부산에서도 가두시위와 촛불집회로 부산민중의 힘을 과시하다.

명동 카톨릭회관 7층에서 KAL858기 사건진상을 위한 시민대책위와 가족회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 범국민위원회가 후원하는 KAL858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9주기 추모제가 열리다. 이 사건 115명의 실종자 이름을 써넣은 큰 펼침막 아래 제단을 마련하고 진행된 추모제는 최광기씨 사회로 변연식 KAL858기 대책위공동대표의 인사말. 오종렬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곽태영 민족정기선양회회장 등 추도사. 차옥정 가족회 회장의 가족대표 인사말, 한대수씨와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가 출연한 추모공연과 참가자들의 헌화 순으로 모두 마치다.

명동 세종호텔 3층 세종홀에서 통일운동관련인사 3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통일뉴스후원의 밤' 행사가 진행되다. 신은희 심슨대교수 사회로 노중선상임고문의 여는 말 박중기후원회상임대표의 인사말, 김근태 열린우리당대표, 오종렬 전국연합상임대표, 최병모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이사장 등 축사가 있었고 영상을 통한 후원회계획 발표, 일본의 통일평론사 최성룡사장과 북측우리민족끼리-조선 륙일 오편집사- 등에서 축사를 보내오다. 이계환.통일뉴스대표의 감사의 말, 노은주명창과 '풍경' 등 축하공연이 있었음

28년간 옥고를 치루고 출소하시어 대구갱생보호공단시설에 계셨던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을 기다리고 계셨던 김원철선생님께서 오랜 옥고의 후유증을 앓아오시다 이날 29일 0시20분 입원해계셨던 대구적십자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빈소는 경북대학병원장례예식장에 모셨고 30일 장례를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권오헌양심수후원회대표가 대구빈소를 찾아뵙고 문상을 드렸습니다.

제2차민중총궐기대회'가 경찰의 불법적인 원천봉쇄와 폭력제지로 파행으로 진행되다. 경찰에 의해 서울역광장이 막히자 농민단체대표자들은 서울역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만행을 규탄하다. 총궐기장소인 시청앞 광장을 경찰차 30여대로 차벽을 이루어 행사참가 노동자 농민들은 명동 을지로입구를 점거, 롯데호텔 앞을 대회장으로 변경하고 시내 곳곳에서 산별적시위를 하면서 대회장으로 모여들다. 오후 6시 한.미FTA저지를 위한 11.29범국민총궐기대회를 3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고 밤 7시 부터는 명동거리에서 촛불문화제를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다.

김원철선생님 발인에배가 대구동일교회주관으로 빈소에서 진행되다. 이어 장지인 경산시 유곡동 기독교묘지에서 기독교식하관예배로 이루어지다. 12시에는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주관으로 '통일염원비전향장기수김원철선생추도식' 이 진행되다. 대구지역에 계신 비전향장기수와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성원등이 함께한 가운데 원영민 사무국장 사회로 한기명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회장이 첫잔을 올린 다음 다같이 추도의례가 있은 다음 약력소개에 이어 옥중동지인 비전향장기수 이학돌선생님과 서울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헌대표의 추도말씀에 이어 단체별 분향재배가 있었음

30

비정규직관련법안이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다. 이들은 "850만 비정규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 모든 양심세력의 바램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 정치, 날치기 폭거에 의해 짓밟혔다"며 오늘 국회의 모습은 민생과 민주주의 파괴현장이 되었다고 질타하고 날치기 법안으로 인해 사실상 2년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규모 해고와 실업이 제도화되고 불법 파견 노동자의 일 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다. 이어서 악법철폐를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더욱 강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히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과 관련 평택대추분교행정대집행 저지 사건에 관련 부당하게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전국연합 노수희 공동의장님을 평택구치소로 면회 다녀왔습니다. 노수희의장님은 평소보다 더 굳건한 결의를 다진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안정권의 불법 폭력적 사법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더욱 더 강력한 투쟁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강민조 유가협이사장님과 모성룡 임미영회원 함께 했습니다.